

초등

# 우리교육

정기구독자를 위한 별책부록  
(배움과 나눔) 각 학년별 교과지도와 학급운영

정기구독자를 위한 별지부록 1  
(인디스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학급운영)

정기구독자를 위한 별지부록 2  
(학급달력)

홍세화 교육계 도전 인터뷰 ⑤ 국회 교육위 유기홍 의원  
“사학법 개정, 교육양극화 해소 위해 노력했다”  
사람과 사람 | 위풍당당 귀여행진 한채운  
교육인물열전 | 경험의 철학자, 사유하는 교육자 존 듀이  
동행 | 멈추지 않으려고 한다 서울 영훈초 신명기 교사  
백창우의 노래꾼을 찾아서 | 이정미

특집

## 다문화시대, 민족과 민족주의를 말한다

다시 시작하는 수업읽기 | 게임을 통해 배우는 세계무역  
리뷰 | 제대로 쓴 역사, 그 첫걸음 <우리들은 정의파다>  
기고 | 야, 전교조, 너 댕댕?  
해외통신원 기고 | 일본 애국심을 강요하지 말라

06



www.uriedu.co.kr

초등 우리교육 2009년 6월 15일 발행 (매월 15일 발행)

112-0060 (02) 919-9212

# ‘혈통 공동체’에서 ‘혈통·문화 공동체’로

심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dhseol@chonbuk.ac.kr



2006년 5월 17일 남북장성급회담 본회담 전 환담에서 남북 대표들은 한민족의 ‘순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남측 수석대표가 “농촌 총각들이 몽골·베트남·필리핀 처녀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자, 북측 단장은 “우리나라는 하나의 혈통을 중시해 왔는데 민족의 단일성이 사라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남측 수석대표는 미소를 머금은 채 “한강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는 수준이다. 주류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어울려 살면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북측 단장은 “우리는 예로부터 삼천리 금수강산이다. 잉크 한 방울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고조선에서부터 중세·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단일민족으로 이어져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북한 대표의 발언을 분석해 보면, 그들은 한민족이 순수 혈통을 간직해 왔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지만, 최근 급증한 국제결혼으로 혼혈아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한강 물의 잉크 한 방울” 정도이므로 별 문제 없다고 보고 있거나(남측) 그조차도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북측)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필자는 그들의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네 가지 방향에

서 문제 제기를 하기로 한다. 첫째, 과연 그들의 인식대로 우리 민족, 즉 한인은 순수 혈통을 간직해 왔을까? 남북한 대표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한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단일 혈통을 유지해 온 것으로 믿고 있다. 고조선·고구려·발해 등은 한족·예맥족·여진족·거란족·돌궐족·몽고족 등 넓은 의미의 동이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였다. 고려 때만 해도 요·금, 즉 거란족과 여진족이 세운 나라를 ‘형제의 나라’로 간주하는 등 한민족은 동이족의 일원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조선 건국 이후 소종화라는 인식이 강렬해지면서 기타 동이족을 오랑캐로 내몰아 동이족 정체성에 단절이 생겼다. 또한, 신라·백제·가야 등은 토착민과 이주민이 어우러진 사회였다. 김해 허씨의 시조인 허황옥은 인도의 한 나라인 아유타국 출신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한민족이 세운 고대왕국의 백성들은 거의 전원이 혼혈인이었다. 한국인들의 족보를 살펴보면, 귀화 성씨들이 적지 않다. 1985년 기준 한국의 성씨 275개 중 136개가 귀화 성씨라고 한다. 얼굴 생김새를 분석한 결과를 따르면, 한국인들은 남방계와 북방계가 섞여 있다고 한다. 또 수천 년 동안 여러 차례의 국제 전쟁을 경험했고,



통일을 논하는 남북 장성급들은 아직 단일민족 신화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 단장은 "우리가 라는 하나의 혈통을 중시해 왔는데(남한 사회의 국제결혼으로) 민족의 단일성이 사라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4차 남북장성급회담. ©연합뉴스

그 과정에서 혼혈이 발생한 것 역시 자명하다. 이를 미루어 볼 때, 미국의 풋볼 영웅 하인스 워드가 순수 혈통이 아닌 것처럼 대부분의 한국인들도 순수 혈통이 아닌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둘째, 혼혈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인가? 수많은 한국인들은 순수 혈통을 숭상하고 혼혈과 잡종을 배척한다. 피가 섞인 짐승이나 사람을 가리키는 비속어들이 그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한민족 형성의 역사적 연원을 따져 보면, 그러한 믿음의 근거가 희박함을 쉽사리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20세기 한민족의 전 세계적 이산의 결과 재외동포 수가 650만 명에 달하고, 그들 중 상당수가 외국에 거주하며 외국 국적을 가진 채 생활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재외동포의 자녀들 중 혼혈인의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한, 경제의 전지구화 현상으로 인해 해외에서 일하는 한국인과 국내에서 일 자리를 찾은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말하자면, 혼혈은 한민족 형성 과정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는 더욱 늘어날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거기에 가치판단을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셋째, 혼혈인의 비중이 한강 물의 잉크 한 방울 정도일까? 2005년 국제결혼 건수는 43,121건으로 같은 해 총 결혼 건수 316,375의 13.6%였다. 그 중 72.3%(31,180건)는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고, 나머지 27.7%(11,941건)는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이다. 최근으로 올수록 국제결혼 중에서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은 중국이 가장 많고, 다음은 일본·필리핀·베트남·태국·몽골·러시아 등의 순이다. 앞으로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한강 물의 색깔이 달라질 정도로 그 비중은 결코 적지 않은 것이다.

넷째, 잉크가 한강 물에 떨어지면 쉽게 용해될 것인가? 이민자들과 그 자녀들이 사회 통합에 성공하면 쉽게 녹아 들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그들은 결코 녹지 않는 단단한 알갱이를 형성하고, 점점 그 크기가 커질 것이다. 순혈주의 정서를 가진 사람들은 혼혈인들을 한민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지배적이 된다면, 우리나라에도 혼혈인들의 집거지역인 게토

(ghetto)가 출현할 것으로 예측된다.

혼혈인이 급증하는 시점에서 민족과 국민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국민은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의 성원 자격을 나타낸다. '국적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출생·인지·귀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다. 민족은 국민과는 구분되는 혈통·문화 공동체의 성원 자격을 가리킨다. 한민족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은 물론이고,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자"까지 포함된다. 재외동포재단법에서는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는 모두 동포 또는 겨레, 즉 한민족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한국계 미국인(재미동포), 한국계 중국인, 한국계 러시아인은 물론이고, 재일동포 중 남북한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조선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한민족의 범주에 포함된다. 당연하겠지만, 부계든 모계든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혼혈인들은 모두 한민족의 일원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률적 규정과 일반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민족 개념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순혈주의자들 중에는 혼혈인을 우리 민족의 일원으로 간주하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고, 남성 위주의 혈통 계승을 신봉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모계 한민족 혈통의 혼혈인들이 한민족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종종 발견된다. 재외동포재단법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민족이 '혈통공동체'로 정의된다면, 이러한 인식은 명백히 오류다. 그렇지만, 남북장성급 회담의 환담에서 나타난 것처럼 꽤 많은 사람들이 편향된 인식을 하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먼저 그들의 편향된 인식이 어떻게 배양되었는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그것은 학습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이후 탈식민지 시대에 민족의 자긍심을 고

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민족은 단군의 후예로 수천 년간 단일민족사회를 유지해 온 것으로 교육해 온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 교육과정은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순혈주의를 과도하게 강조해 왔음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민족적 순수성을 강조하는 것은 자칫하면 다른 민족에 대한 무시와 혼혈인에 대한 멸시라는 사회문제를 낳은 인종주의와 자민족중심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것이 지나치면 외국인과 혼혈인에 대한 비하와 혐오로 직결되어 외국인 혐오증으로 표출된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남북 대표의 발언이 순혈주의라는 점에서 일치한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북측의 사정도 대한민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의 주체사상이 우리 민족의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사람들에게 순혈주의를 교육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이 영화를 누리며 번영·발전하기 위해서는, 누가 '우리' 인가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혼혈인이 우리 민족의 일원이라는 점에 대한 회의가 없어야 한다. 아울러,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결혼이민자와 그 친인척까지도 민족의 일원으로 포용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두뇌유치 경쟁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민족의 배우자와 그 친인척까지를 '우리'로 포함하는 것은 한민족의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여겨진다. 한인의 문화와 긍지를 공유하는 '우리 집단'으로 민족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한민족을 '혈통 공동체'에서 '혈통·문화 공동체'로 확대시킴으로써, 그 외연을 넓히는 게 필요하다.

세계 각지에 진출한 한민족과 그의 가족, 친인척을 아우르는 문화공동체로 민족의 외연을 확대하려는 시도와 함께, 한민족과 세계 각국의 국민·민족 간의 공존공영에 바탕을 둔 평화애호 정신을 배양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